

## 장애인 향수 및 창작 지원사업 심의 총평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11년도 장애인 향수 및 창작 지원사업은 투입재원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인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예산액 11억 9천만 원)과 복권기금사업인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사업’(예산액 10억 원)으로 구분된다. 국고보조사업은 4개, 그리고 복권기금사업은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지원 신청 및 심의 결정 총괄 현황’([표 1])과 ‘지원 신청 및 심의 결정 분야별 현황’([표 2])을 아래에 표로 제시한다.

**[표 1] 지원 신청 및 심의 결정 총괄 현황**

(단위 : 건, 원)

사업내역	신청		심의 결정		
	건수	신청액	건수	결정액	미결정 잔액
<b>[국고]장애인문화예술향수지원사업</b>	<b>129</b>	<b>4,067,407,200</b>	<b>44</b>	1,190,000,000	<b>0</b>
○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집중육성 사업	12	542,357,200	12	450,000,000	-
○ 장애인 문화향수 지원	106	2,991,507,000	24	450,000,000	-
○ 풀뿌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2	273,800,000	1	140,000,000	-
○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9	259,743,000	7	150,000,000	-
<b>[복권]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사업</b>	<b>113</b>	<b>2,556,917,620</b>	<b>41</b>	<b>840,000,000</b>	<b>160,000,000</b>
○ 장애 예술가(단체) 창작활동 지원	90	1,538,276,220	31	500,000,000	-
○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활동 및 발간 지원	7	213,650,000	2	40,000,000	160,000,000
○ 장애인 문화예술 역량강화 지원	16	804,991,400	8	300,000,000	-
<b>계</b>	<b>242</b>	<b>6,624,324,820</b>	<b>85</b>	<b>2,03000,000</b>	<b>160,000,000</b>

**[표 2] 지원 신청 및 심의 결정 분야별 현황**

(단위: 건)

구분	사업유형	문학	시각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예술일반	계
(국고)장애인문화예술향수지원사업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집중육성 사업	1	4	2	1	1	-	3	-	12
	장애인 문화향수 지원	1	14	18	13	27	11	10	12	106
	풀뿌리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	-	-	-	-	-	2	-	2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	5	1	1	2	-	-	-	9
(복권)장애인창작및표현활동지원사업	장애 예술가(단체) 창작활동 지원	14	41	10	2	12	1	5	5	90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활동 및 발간 지원	1	1	1	-	-	2	1	1	6
	장애인 문화예술 역량강화 지원	1	1	6	1	4	1	1	1	15
계	신청 건수(A)	18	66	38	18	46	15	22	19	242
	결정 건수(B)	7	26	14	7	16	3	9	3	85
	(B/A 비율, %)	(38.9)	(39.4)	(36.8)	(38.9)	(34.8)	(20.0)	(40.9)	(15.8)	(35.1)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장애인 문화예술사업의 효과성 제고와 심의비용 절감을 위해 국고보조사업과 복권기금사업을 통합 심의하기로 하고 장애인분야 책임심의위원을 위촉하였다. 위원 임기는 1년으로, 2011년 3월 1일자로 외부 책임심의위원 곽대석(CJ나눔재단&문화재단 사무국장), 권기태(소설가, NHN 검색센터 부장), 백 령(경희대 겸임교수), 류 환(아방가르드 문화예술총연합회 대표)과 내부 책임심의위원 오양열(문화복지부 전문위원, 명지대 겸임교수) 등 5명을 임명하였다. 이어서 지원신청 공모를 공고하여 2011년 3월 7일(월)부터 3월 24일(목)까지 접수를 완료하였다(접수결과 [표 1] 참조). 심의회의 일자와 장소가 2011년 4월 9일 예술위원회 2층 회의실로 결정됨에 따라 사전 검토를 위해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242건의 지원신청서 사본을 각 책임심의위원들에게 전달하였다.

4월 9일(토) 오전 10시 정각에 개최된 지원심의회의에서는 우선 단위사업별 심의기준과 가중치, 단위사업별 예산배정(안) 등을 검토·승인하고, 지원신청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핀 후 2건 이상 신청단체(개인)에 대한 중복 지원을 가급적 배제하여 보다 많은 단체(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등 세부 심사원칙을 정하였다. 또한 향수사업은 장애인 문화향유층의 수용성·대중성에, 창작사업은 장애인 예술가로서의 발전 가능성과 작품의 수월성에 비중을 두고 심사하였다. 심의는 2단계 과정으로 진행되어 1단계에서는 사업취지에 대한 적합도, 사업수행역량,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 제작·출연진의 예술적 역량 및 성장 잠재력,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 재정계획의 건전성 등에 대해 심의위원 전원의 충분한 토의를 거쳐 지원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였고, 2단계에서는 심의기준에 의한 채점을 통해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별 지원금액을 결정하였다. 이번 심의를 통해 지원 결정한 85건의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 결정액은 별첨 내용과 같다.

지원 신청과 지원 결정 내역을 보면, 먼저 총 242건, 66억 2,432만 4,820원 신청에 85건, 20억 3,000만원이 심의 결정되어 건수 대비 35.1%, 금액 대비 30.6%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서울 대 지역의 비율을 보면 지원 신청은 113건(46.7%) : 129건(53.3%)에 지원 결정은 46건(54.1%) : 39건(45.9%)이고,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르별 지원 결정 비율도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단위사업 중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집중육성 사업’은 대표적인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개 단체에 대한 지정 공모를 통해 지원 결정이 이루어졌다. 일부 신청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신청사업 각각에 대해 예산 사정을 통해 총 5,000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지원 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장애인 문화향수 지원’에 추가 배정하였다.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활동 및 발간 지원’의 경우 당초 2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나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신청사업 2건(4,000만 원)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지원 결정 잔액에 대해 타 복권기금사업에 추가 배정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장애인 평론가에 의한, 또는 장애인 예술가에 대한 조사연구·발간 활동의 활성화와 장애인 예술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의 활성화라는 취지를 고려하여 추가 공모하기로 결정하였다.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활동 및 발간 지원’ 추가 공모 및 심의는 2011년도 상반기 중 시행하여 마감할 계획이다.

금번 심의과정을 통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열정과 의지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향수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장애인 향수 및 창작 지원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전체 책임심의위원들이 공감하였다.

## 장애인 향수 및 창작 지원사업 책임심의위원 일동